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의 설진(舌診)에 대한 비교 연구

정아람¹, 이해윤², 황만석^{2*}

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소아과교실, ²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on the Tongue Diagnosis between Korean medicine and Ayurveda

A Ram Jung¹, Hye-Yoon Lee², Man-Suk Hwang^{2*}

¹Department of Pediatrics,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ongue Diagnosis of Korean medicine with that of Ayurveda.

Methods: In this article, first we introduced concept of Tongue Diagnosis based on physiological view. Further, we also reviewed published works including books and articles. Then, we reviewed Ayurveda to find similar concepts to Viscera Assignment on Tongue, and analyzed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levant contents of Korean medicine and Ayurveda.

Results: In Ayurveda, they divided viscera into two part (right and left) and some elements of viscera were assigned to either side of divided tongue. In Korean medicine, a tongue is divide into three parts of Sangcho(上焦, Shang Jiao), Jungcho(中焦, Zhong Jiao) and Hacho(下焦, Xia Jiao) ; similarly, in Ayurveda, they divide a tongue into three regions of VATA, PITTA, KAPHA.

Conclusion: It can be inferr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ions of a tongue and viscera of a body that Korean medicine and Ayurveda have a close relationship.

Key Words : Tongue Diagnosis, Korean Medicine (KM), Ayurveda

서론

혀를 보고 진찰하는 것을 설진(舌診)이라고 하는데 주로 설체(舌體)와 설태(舌苔)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병정(病情)의 변화를 찾아내는 진찰방법이다. 설진은 망진(望診)의 일부라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변증 과정에서 그 활용도는 망진의 여타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변증학에서

설진은 맥진과 함께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 방법이다¹⁾.

설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설진이 시작된 시기는 서주(西周) 시기이고 전국시대에 이르러 기초가 확립되며, 당시 설진을 활용한 의가로는 편작이 대표적이다. 『黃帝內經』에는 설진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 기혈의 변화가 혀에 반영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靈

• Received : 10 May 2019

• Revised : 25 May 2019

• Accepted : 28 May 2019

• Correspondence to : 황만석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82-55-360-5970, Fax : +82-55-360-5559, E-mail : hwangmansuk@pusan.ac.kr

樞』는 혀의 생리·병리적 진단에 대한 의의를 위주로 논하는 등 설진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어 이후 설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元)대에 두청벽(杜淸碧)의 『敖氏傷寒金鏡錄』이 설진의 전문 서적으로서는 효시가 된다. 이후 명(明)대에는 설진이 임상 각과에 널리 보급되어 거의 모든 의서에 설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²⁾. 청(靑)대에 이르러 강함돈(江涵暾)이 저술한 『筆花醫鏡』은 “舌者心之竅凡病俱現于舌 能辨其色證自顯然 舌尖主心 舌中主脾胃 舌邊主肝膽 舌根主腎”이라 언급하여 혀의 부위에 장부(臟腑)를 배속한 최초의 기록이다³⁾. 명말(明末)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온병학은 혀의 관찰을 중시하여 오우가(吳又可)는 “溫病察舌”의 원칙을 창시하는 등 설진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중의(中醫)의 발전에 따라 혀에 대한 생리, 병리, 동물실험연구 등을 통한 설진의 현대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⁴⁾.

아유르베다는 고대 인도에서 기원한 오래된 자연주의 요법으로 그 뜻은 “생활의 지식” 또는 “생명의 지식” 등으로 해석된다. 아유르베다는 한의학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론적 기초를 보면 신체의 기본요소(도샤, DOSHA)의 균형이 깨질 때 병이 난다고 본다. 그리고 한의학에서처럼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와 기능을 관장하는 선천적인 힘이 어우러져 생명활동이 영위된다고 말한다. 한의학에서와 같이 신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러 지점이 있으며, 각종 질병과 치료는 한의학의 이론과 유사하게 도샤의 성질과 그것에 수반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⁵⁾.

기존 연구에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 유사성에 대하여 비교 연구되었고, 주로 기원과 역사, 기본 원리, 역사적 교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⁶⁾. 본 저자는 관련 연구에서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 특히 설진에 있어서 유사성이 관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저자는 설진에 대하여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해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설진에 대한 생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의학에서의 설진과 아유르베다에서의 설진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논문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내용에서 공통점 등을 분석하였다. 관련 도서 검색어는 ‘설진’, ‘舌診’, ‘tongue diagnosis’, ‘ayurveda’을 사용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보유 중인 도서를 참고하였으며 목록은 첨부한 바와 같다(Appendix A).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위한 검색어는 ‘tongue diagnosis [Title/Abstract] AND Korean medicine [Title/Abstract]’, ‘tongue diagnosis [Title/Abstract]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itle/Abstract]’, ‘tongue diagnosis [Title/Abstract] AND ayurveda [Title/Abstract]’을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목록은 첨부한 바와 같다(Appendix B).

또한, 한의학 설진에서의 특수성인 장부배속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유르베다에서 검색하여 상호 비교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결 과

1. 혀의 부위와 신체

1) 혀의 해부학적 구조

혀는 운동에 관여하는 외설근(extrinsic muscle of tongue)과 혀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내설근으로 이루어진 근육성 기관이다. 혀는 크게 설유두(lingual papilla)를 갖는 앞쪽 2/3에 해당하는 설체와 편도조직으로 이루어진 뒤쪽 1/3에 해당하는 설근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표면은 구강점막과 연속되며 하면은 매끈하나 배면(背面, 혀등)은 설유두와 설편도(lingual tonsil)에 의해 거칠게 나타난다⁷⁾. 혀등에 나타나는 설유두는 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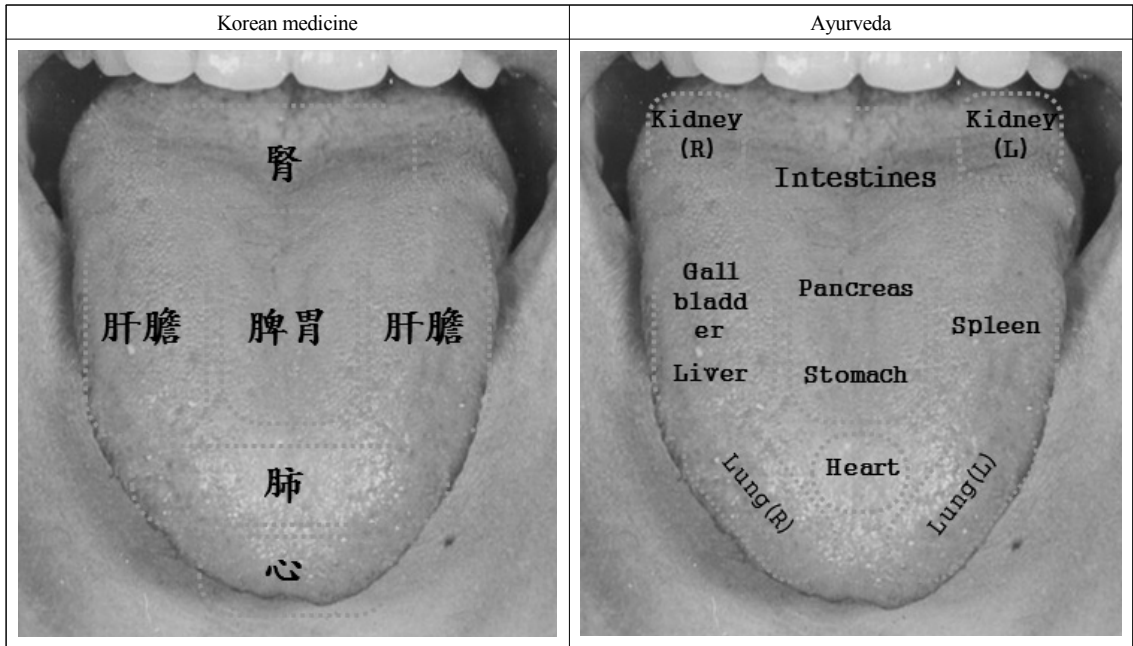


Fig. 1. A correlation of tongue with viscera and bowels.

를 살펴보면 유곽유두(vallate papilla), 용상유두(fungiform papilla), 사상유두(filiform papilla), 엽상유두(foliate papilla) 등이 있다. 설침(舌尖) 부분에 용상유두가 많고, 혀등 뒤쪽으로는 유곽유두가 존재한다.

2) 장부 배속

현대 한의학 설진에서 장부 배속과 아유르베다에서의 장기 배속은 아래 그림과 같다(Fig.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유르베다에서의 장기 배속이 보다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신(腎)과 폐(肺)의 경우 좌우구분을 하고 있으며, 비위(脾胃)의 경우에도 위와 장을 구분하여 배속하고 있었다.

3) 기타

장부 배속의 한의학에서는 삼초(三焦), 즉, 상초(上焦), 중초(中焦), 하초(下焦)를 혀의 삼등분에 대응하

여 설명하고 있으며 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를 혀의 삼등분에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다(Fig. 2). 바타, 피타, 카파는 각각 공기적 성분, 불의 성분, 물의 성분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견되는데, 바타는 주로 골반과 하부의 장관에 위치하고, 피타는 주로 하부 장관과 위장 사이에 있다. 카파는 주로 위장에 있고 흉부와 머리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⁸⁾. 한의학에서 삼초의 개념과 성질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관장하는 인체 부위에 대하여는 유사성이 보인다.

2. 혀등(Dorsum of tongue)의 관찰

1) 설체의 관찰

설체는 설질이라고도 하는데, 설태를 제외한 설본체의 총칭이다. 혀는 점막을 덮고 있는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기 때문에, 색깔을 반영하기 쉬운데, 정상에서는 붉은 기가 도는 분홍색을 띠고 있다. 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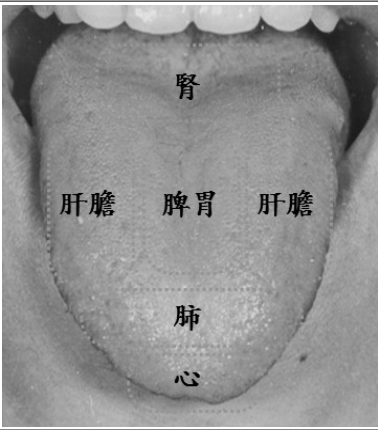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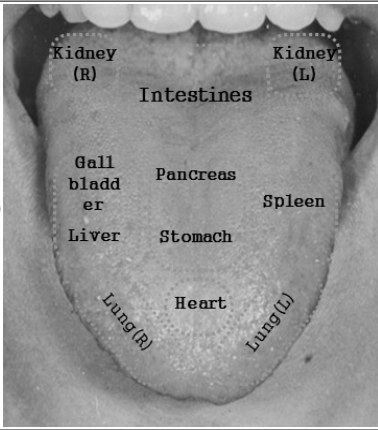
Korean medicine		Ayurveda	
	下焦		VATA
	中焦		PITTA
	上焦		KAPHA

Fig. 2. A correlation oftongue with three parts of body.

등으로 혈액이 짙게 되면 설체는 전체적으로 짙은 홍색으로 되고, 빈혈로 혈색소가 감소하면 적색도는 저하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화헤모글로빈이 많아지면 선홍색이 풍부해지고, 환원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면 푸른빛이 도는 청색증이 된다. 그러나 아주 심한 빈혈에서는 청색증은 일어나지 않는다⁹⁾.

(1) 설체의 색

한의학에서 설진시 혀의 색깔은 담백설(淡白舌), 담홍설(淡紅舌), 홍설(紅舌), 강설(絳舌), 자설(紫舌), 청설(靑舌)의 6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담홍설이 정상적인 상태의 혀이며, 담백설은 허증(虛證) 또는 한증(寒證)을, 홍설과 강설은 열증(熱證)을, 청설은 한증을 나타낸다. 자설은 열증에서도, 한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강설과 자설, 청설은 혈어증(血瘀證)에서 보일 수 있다¹⁰⁾.

아유르베다에서는 혀의 색을 담백설(淡白舌), 담홍설(淡紅舌), 홍설(紅舌), 자설(紫舌) 등으로 구분하며, 혀의 색에 따라 피타(PITTA)의 높고 낮음을 위주로 해석한다. 담백설은 피타의 낮음 또는 혈허(血虛)상태를 의미하며, 홍설은 피타의 높음 또는 열증을 의미한다. 자설은 혈액정체를 의미한다고 본다¹¹⁾.

피타는 열의 성질을 가지므로¹²⁾ 피타가 낮음은 곧 한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담백설에 대하여 두 의학 모두 한증 또는 혈허 상태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 홍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열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설에 대하여 혈액정체로 설명하는 부분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설체의 형태

한의학에서 설진시 관찰하는 혀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혀의 두터운 정도(肥瘦), 매끈한 정도(老嫩-노설과 눈설), 균열의 존재 여부, 눌린 듯한 자국[齒痕]의 존재 여부, 붉은 점[紅點]과 돌기·헛바늘[芒刺]의 존재 여부, 그리고 검붉은 점[瘀點]이나 검붉은 영역[瘀斑] 또는 혀 아래의 정맥 확장[舌下絡脈怒張] 여부 등이 있다¹³⁾.

아유르베다에서는 설체의 수축 여부, 구부러짐 또는 늘어짐, 부푼 형태 등을 판별하여 각각 피타, 바타, 카파의 상태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Table 1).

바타, 피타, 카파의 속성과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불균형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는 것은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사료되는 바 표로 요약하여

Table 1. Comparative Clinical Significance in Korean medicine and Ayurveda

Tongue Feature	Korean medicine ^{21,22)}	Ayurveda ²³⁾
Color		
Pale	Dual deficiency of qi & blood, cold pattern	Low prana
Red	heat pattern	High pitta
Purple	cold-heat complex pattern, blood stasis	High pitta
Blue	cold pattern, blood stasis	Agni & Pitta out of balance, kapha is high
Form of Tongue Body		
Contracted	Heart-blood deficiency, internal heat affecting the tissues and muscles	Pitta & Agni disturbance
Crooked	Liver wind	Vata high
Flaccid	Yin damage, blood deficiency	Vata is high
Swollen	Cold & heat dampness, phlegm over flowing	Kapha is out of balance
Protruding	Phlegm, toxins & Heat in the heart	Kapha is imbalance, Pitta is in excess
Thin	Exterior symptom complex in warm disease	Pitta is slightly high, kapha is affected
Thick	Interior-symptom complex; excess heat, cold & phlegm	Pitta is high, kapha is high
Tongue Fur		
Moist	Mild disorders that have not affected body fluids	Kapha is slightly high
Dry	High heat consuming body fluids	Pitta & Agni are high
Greasy/Slippery	Dampness and disturbed qi in stomach, spleen or lungs	Kapha is high
White	cold pattern, exterior pattern	Kapha is high
Yellowish	Excess heat affecting the whole digestive system, interior pattern	Pitta is high and out of balance
Grayish Dark	Warm diseases, interior symptoms affecting internal organs	Kapha is high with Agni imbalance
Black	Interior-symptom complex; heat invading blood level	Vata, Pitta & Kapha disturbed and out of balance

제시하였다(Table 2).

2) 설태의 관찰

설태는 탈락된 설상피세포, 음식 잔해 그리고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설태에 서식하여 균락을 이루는 구강 내 정상세균총이라 함은, 혀의 물리화학적 환경이 생장에 적당하여야 하고, 숙주의 선천, 적응 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관용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설태는 타액의 분비선 기능과 분비량, 분비액 상태, 구강 내 상재균, 균수, 컨디션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타액선이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장신경과의 관련이 강하여 내장 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건강 상태에서는 설태는 적고 얇아진다. 생체는 항상 상상성을 유지하는

기구로 되어 있지만, 설태의 균형도 구강 내 세균과 면역반응이 교묘하게 관여하여 항상성의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¹⁵⁾.

(1) 설태의 색

한의학에서 설태의 색깔은 크게 4 가지로 나눈다. 열증(熱證)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설태의 색깔은 ‘백(白) → 황(黃) → 회(灰) → 흑(黑)’의 순서로 변화된다. 설태는 병사(病邪)의 위치, 즉 병위(病位)를 지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백태는 표증(表證)을 나타내며 황태와 회태, 흑태는 이증(裏證)을 나타낸다. 정상 설태는 백태이지만 설체가 잘 보일 정도로 얇게 형성된 박백태(薄白苔)일 경우에만 정상 범위로 볼 수 있다¹⁶⁾.

Table 2. The attributes and properties of VATA, PITTA, KAPHA^{12,23)}

	VATA	PITTA	KAPHA
Basic elements	air, ether	fire, water	water, earth
Biological humors	cold, light, mobile, dry, hard, rough	hot, slightly wet, light, sharp, flowing	cold, wet, heavy, dull, gross, static
Attributes	irregular, rarefied	intense, fluid, liquid	viscos, dense, smooth
Climatic factor	Wind & cold-dryness	Heat & humidity	Cold-dampness
	deficiency or irregularity of the digestive juices	diarrhea, hemorrhoids, peptic ulcer, irritable bowels	digestions are sluggish and unregulated
Effects of unbalance or excess	Anxiety, fatigue, worry	spiritually lost, constantly seeking	dry in all tissue and organs
	dry cough, shortness of breath	dry skin, graying or balding hair	respiratory system excess amounts of mucous
	loss of enthusiasm, loss of energy	character is anxious, angry, irritable	character is jealous, intolerant

아유르베다에서 설태의 색은 ‘백(白) → 황(黃) → 갈(褐)’의 순서로 변화되며 열증(熱證, internal heat)의 정도에 따라 카파(KAPHA)의 손상 유무로 해석된다. 갈색의 경우 내열이 심하여 카파가 손상된 단계로 해석하며, 무태의 경우는 카파의 결핍 또는 불균형을 의미한다¹⁷⁾.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 동일하게 열증의 정도에 따라 백태에서 황태를 거쳐 흑태로 병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병위도 인체 안쪽으로 깊어진다는 부분도 공통점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아그니(agni, 생물학적 과정)가 일어나는 체내의 타오르는 불꽃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열증이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기존 열사의 개념으로 일관되게 설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바타, 피타, 카파의 속성과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불균형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요약된 표를 참조 바란다(Table 2).

(2) 설태의 형태

한의학에서 보는 설태의 형태적 특징으로 중요한 것은 설태의 두께와 균집 형태이다. 설태의 두께에 따라 후태(厚苔), 박태(薄苔), 소태(少苔), 무태(無苔)

와 같은 구분이 있으며, 설태가 제거되고 건조한 점액으로 인해 빛나는 반사층이 보일 경우 이를 경면설이라 한다. 설태의 균집 형태는 부태(腐苔)와 이태(膩苔)의 2가지로 구분한다. 설태의 탈락은 위(胃)의 기음양상(氣陰兩傷)을 의미한다¹⁸⁾.

아유르베다 설진에서도 설태의 두께와 균집 형태를 위주로 해석한다(Table 1).

(3) 설태의 습윤도

『辨舌指南』에서는 “滋潤者其常 燥澁者其變 潤澤爲津液未傷 燥澁爲津液已耗 濕症舌潤 熱症舌燥 此理之常也”라고 하였다. 즉, “혀가 자윤, 즉 촉촉한 것은 정상이며 조태와 삽태는 변한 것이고 윤택한 것은 진액이 상하지 않은 것이며 조태와 삽태는 진액이 이미 소모된 것이다. 습증일 때에는 혀가 습윤하고 열증일 때는 혀가 마르는데 이 이치는 일반적인 이치다”라고 한 것이다¹⁹⁾.

아유르베다에서 설태의 습윤한 상태는 카파의 다소 높은 상태로 해석된다. 설태가 건조한 것은 피타와 아그니(Agni)가 높은 단계로 해석하며, 윤향한 경우는 카파가 보다 높음을 의미한다²⁰⁾.

바타, 피타, 카파의 속성에 따라 인체의 상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두 의학에서 공통점을 보이

고 있으나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2). 예를 들면, 피타가 높은 상태에서는 설태의 건조가 관찰되며 소화기 증상으로는 설사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한의학에서 조증(燥症)에서는 변비가 일반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3. 혀 아래면(Inferior surface of tongue)의 관찰

한의학에서 혀 아래면의 관찰은 기혈의 상태, 순환상태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혀의 밑면은 태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근육과 혀밑정맥(sublingual vein)의 상태 및 색깔을 주로 관찰한다. 정상인 혀밑정맥은 담홍색으로 가지로 나누어 노창(怒張), 결절(結節), 만곡(彎曲)도 없고 유연한 상태를 나타낸다. 혀밑정맥이 청자색 또는 하얀색으로 맥의 형이 만곡, 긴장하고 있는 것은 어혈과 관계가 깊다.

아유르베다에서도 한의학과 동일하게 혀밑정맥이 두텁게 관찰되는 것을 어혈(blood stagnation)로 설명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도 외상 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혀 아래면의 관찰에서는 두 의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설진은 인체의 기능 상태를 분별하는 독특한 진단 방법으로서 혀의 색, 형태, 설태 등을 눈으로 관찰하여 질병의 진단에 도움을 준다.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는 혀의 부위에 인체 장부를 배속하여 해석하는 등 해석 방법에 유사점이 많아 이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학문 사이 상호 교류로 인한 유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있어 중심이 된 비단길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서아시아, 이란고원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파미르고원을 거쳐 중국의 장안까지 연결된다.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

역의 활성화로 인해 인도와 중국 간에는 활발한 문화의 교류가 있었으며²²⁾, 인도의 불교와 간다라 미술은 중국에 전파되어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 되었다. 삼국시대 중기 이후로 인접한 중국의 중의학과 함께 인도의학이 한반도에 상당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체계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⁶⁾.

혀의 부위와 신체의 배속 관계를 보면 한의학에서의 장부배속과 아유르베다에서의 장부 배속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腎)과 폐(肺)의 인체 장기를 좌우 구분하여 배속하는 특징이 있었다. 간과 비장에 대하여도 좌우 구분하여 배속하고 있는데, 인체의 우측에 위치한 장기는 혀의 우측에 투영하고 있고 좌측에 위치한 장기는 혀의 좌측에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설진을 통하여 좌우 장기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심(心)에 대한 해석인데, 한의학에서는 설첨부를, 아유르베다에서는 설첨부의 내측 중앙부를 심(心)에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의학의 설진에서는 근위부는 하초(下焦) 원위부는 상초(上焦)가 배속되어 있으며, 유사하게 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 피타, 카파를 배속하여 해석하고 있었다.

아유르베다의 설진에서 장부 배속은 흥복강의 장기를 그대로 혀에 투영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는 상당히 직관적이며 해부학에 근거하고 있기에 여타의 이론이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장기의 이상이 어떻게 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한의학의 설진에서 장부 배속은 이보다 복잡한 요소가 많다. 첫째, 한방 생리학에서 말하는 장부는 해부학적인 장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둘째, 한의학에서 혀는 경락, 경근과의 순행을 통해 모든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 셋째, 한의학에서 설진은 변증을 위한 하나의 기초차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특정 장기의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두 의학에서 설진 장부 배속이 비슷하다는 것이 신비하게 다가온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특정 질병 상황에 특정 혀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설진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인체 좌우의 상태에 혀에서 다르게 관찰되는지와 해부학적인 위치가 어떤 방식으로 혀에 투영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의 설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장부배속 및 부위별 해석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혀의 부위별 장부 배속에 대한 해석과 임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1. 한의학에서는 상초(上焦), 중초(中焦), 하초(下焦)를, 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를 혀의 삼등분에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다.
2.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에서에서 설진시 혀의 색을 담백설, 담홍설, 홍설, 강설, 자설, 청설로 구분하고 있다. 아유르베다에서 담백설은 피타의 낮음 또는 혈허상태를, 홍설은 피타의 높음 또는 열증을 의미한다. 자설은 혈액정체를 의미한다.
3. 한의학에서 설진시 혀의 형태적 특징은 肥瘦, 老嫩, 齒痕의 존재, 紅點, 芒刺의 존재, 瘀點瘀斑 또는 舌下絡脈怒張 여부 등으로 구분하고, 아유르베다에서는 설체의 수축 여부, 구부러짐 또는 늘어짐, 부푼 형태 등을 확인하여 피타, 바타, 카파의 상태와 연관하여 해석한다.
4. 한의학에서 설태는 ‘백 → 황 → 회 → 흑’ 순서로, 아유르베다에서는 ‘백 → 황 → 갈’의 순서로 변화를 설명 및 해석한다.
5. 한의학과 아유르베다 모두 설태의 습윤도를 설

진에 활용하며, 아유르베다에서는 설질이 건조한 것을 피타와 아그니가 높은 단계로, 윤활한 경우는 카파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Acknowledgement

A Ram Jung and Hye-Yoon Lee contributed equally to this study.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1.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5.
2. Park JK, Yun CY. The study on the history of tongue diagnosis(I). The Journal of Daejeon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7;5(2):281-92.
3. Park JK. The study about a principle and meaning of tongue diagnosis. The Journal of Daejeon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8;2(1):183-206.
4. Yun CY, Park JK. The study on the history of tongue diagnosis. The Journal of Daejeon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7;1(1):136-55.
5. Park CG, Park JW. Formation and System of the Ancient Indian Medicine (AYURVEDA).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998;11(1): 513-674.
6. Kim D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Indian Traditional Medicine. J Korean Oriental Med 2005;26(2): 201-16.
7. Korean academy of oral medicine. Oral

- medicine 2ed. Seoul: Komoonsa. 2013:59-60.
8. Park JW, Park CK. Formation and system of the ancient indian medicine(Ayurved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1998;11(1):516-674.
 9. Betbu S. Serada K. Tongue diagnosis for clinicians - integrating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Seoul: Koonja. 2005:6.
 10.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6.
 11. Walter SK. Ayurvedic tongue diagnosis. Twin Lakes: Lotus Press. 2006:233.
 12. Park JW. Ayurveda. Seoul: Jiyoung Press. 2008:89-165.
 13.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7.
 14. Korean medical information cooperation. On board. 2017;1:152-9.
 15. Betbu S. Serada K. Tongue diagnosis for clinicians - integrating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Seoul: Koonja. 2005:4-13.
 16.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8.
 17. Walter SK. Ayurvedic tongue diagnosis. Twin Lakes: Lotus Press. 2006:233-4.
 18.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9.
 19. Lim YG. Tongue diagnosis. Seoul: Jungdam. 2003:124.
 20. Walter SK. Ayurvedic tongue diagnosis. Twin Lakes: Lotus Press. 2006:248.
 21. Hong SS. Diagnostic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中醫診斷學). Seoul: Koonja. 2009: 47-65.
 22. Kim GW. Byeonjeunghak. 2ed. Wonju: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7:14-8.
 23. Walter SK. Ayurvedic tongue diagnosis. Twin Lakes: Lotus Press. 2006:246-8.
 24. Yoon YH.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East - West Thought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Thought in the 21st Century: A Study for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Religion -CHUL HAK SA SANG :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2003;16(6):89-95.

ORCID

- 정아람 <https://orcid.org/0000-0002-1584-2740>
 이해운 <https://orcid.org/0000-0002-9486-1703>
 황만석 <https://orcid.org/0000-0003-2154-7358>